

공동체 소식



주님 세례 축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 우리 본당 공동체
- + 본당 공동체의 각 가정

■ 오늘은 주님세례 축일입니다. 주님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자신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자신의 환경과 현실 안에서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복사단 겨울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캔사스 대교구 내 이민자 미사

- 일시 : 1/17(주일) 오전 11:00
- 참석 : 평협위원들 및 참석을 원하시는 분

■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2016. 1. 16 (토) 오전 11:30.

■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2016. 1. 23 (토) 오후 05:30.

■ 본당 평협회

- 일시: 1/17일에서 1/24일 교중미사 후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당 달력 배부에 대하여

- 남은 본당달력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가정에서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 가정기도 신청에 대하여

- 내용: 가정기도를 원하시는 가정은 전례부를 통하여 '가정기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기도의 지향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욱더 훌륭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 전입가정은 이전 본당에서 전출교적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	210	156	479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야고보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문석찬 요셉	문문주 엘리사벳

■ 애찬 봉사자

금주	안현숙, 김화년, 정명숙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3	79명	408불	1050불
문석찬, 정준구, 조지연, 임창주, 류기범. (총 5세대)			

주님 세례 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6년 1월 10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심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시고 나자렛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나시어 공적으로 활동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화해설

그리스도의 세례 (Leonardo da Vinci, 템페라 1472-1473, 우피치미술관 피렌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마태 3,13-17; 마르 1,9 -11; 루카 3,21-22)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로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리게 하시어 특별한 모양으로 그분을 축성하셨음을 드러내 보이신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례를 계시한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1-4.6-7<또는 40,1-5.9-11>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화 답 송 : 
 주 님 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제 2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8<또는 티토 2,11-14; 3,4-7>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요한이 말하였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시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5-16.21-22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언제나 예수님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세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받는 것인데(마르 1,5),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께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라고 묻습니다(마태 3,14).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마태 3,15) 당신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르코 복음서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마르 10,35).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마련해 놓으신 잔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시게 될 ‘잔’은 우리 모두가 의로워지도록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겻세마니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바 있습니다(마르 14,36 루카 22,42 와 마태 36,39도 참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 10,39에서 “내가 받았던 세례”가 아니라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당신의 세례는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걸어야 할 하나의 길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자체가 당신의 사명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세례의 길임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당신을 십자가 제물로 봉헌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점이 바로 당신의 사명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하느님은 이런 예수님을 두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세례를 받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꺼이 자신에게 맡겨진 잔을 마시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영광스럽게 되기만을 바라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벗겨내어 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안다 해도 마셔야 할 잔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아버지께 “저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세례는 진정 의미 있는 세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세례 축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잔은 과연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사 하느님께 청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기꺼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여성 판관 드보라

여호수아가 죽은 뒤 임금이 등장하기 전 한동안 이스라엘은 판관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명한 판관들이 등장하는데,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임금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가 하느님께 기도를 한 후에 바락이라는 장수를 불러서 출병을 명령합니다. 그때 그는 드보라에게 어떻게 대답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 4,1-10

드보라의 명령대로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타보르산으로 올라갔다는 보고를 적편 장수 시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자기의 군대를 모두 모이게 하였어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바락은 병사 만 명을 거느리고 산에서 내려가 시스라의 군대와 혈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바락의 군대가 승리하자 적장인 시스라는 모든 군사를 잃고 혼비백산하여 출혈량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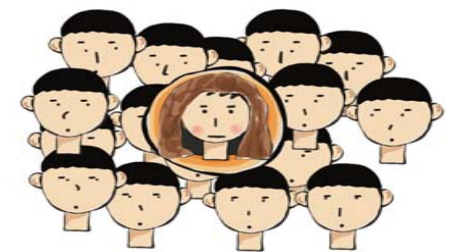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 4,11-16

시스라는 천신만고 끝에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초르 임금 야빈과 카인족 헤베르가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공손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시스라가 마실 물을 청하자, 우유가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누가 와서 자신을 찾거든 없다고 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 후 과연 시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무서운 세상이지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판관 4,17-24

구약 성경에 보면 판관은 왕은 아니지만, 민족을 지도하는 통치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판관 시대에 강력하게 민족을 통치할 왕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느님은 유능한 판관을 보내 시어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판관이란 ‘구원자’라는 뜻으로 재판관의 역할뿐 아니라, 국가위기 상황에서 군사 총사령관의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에서 이기는데 드보라의 용기는 남자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지도자의 능력과 용기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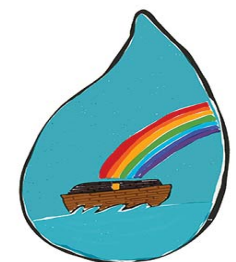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오래전부터

당신 머리 위로
쏟아지는 이 물은
오래전부터
그분과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 주는
아름다운 물입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루카 3,16)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3